

강원도 오산리 신석기 유적의 발굴 성과와 과제

임 호 재(서울대 박물관장)

우리나라에서 신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은 150개소이지만, 동북 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잇는 기나긴 동해안 지대는 신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 조사가 실시된 일이 없어 학문상의 공백지대인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북지역과 남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오산리 유적의 조사는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이 유적은 한국 신석기시대 유적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해도 좋을 만큼 여러개의 신석기 퇴적층이 층서적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고 각 층에서는 각지역의 특징적인 뽕죽밀, 납작밀, 덧무늬토기 등이 출토되고 있어 비단 동해안 선사문화의 구명뿐만 아니라 한국 신석기 문화의 전반적인 흐름 파악에도 유용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산리 유적은 강원도 동해안변 모래사장에 있다. 즉 강원도 양양으로부터 남대천을 따라 동편으로 약 4킬로미터를 내려 가면 해안에 이르는데 여기서 다시 동해안변을 따라 남측으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있다. 이곳은 바로 그 유명한 낙산사로부터는 약 5킬로미터 남쪽에 위치한 곳이며, 약 30호 가량의 오산리 어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동해안으로 부터 내륙쪽으로 약 2백미터 떨어진 ‘쌍호’라고 불리는 자연호수의 동북 모서리인 사구 위에 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필자는 1981년부터 1988년까지 무려 6차에 걸쳐 본격적인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복원 가능한 납작밀 원형토기 20여 점을 포함하여 토기편 3천여 점, 결합식 낚시바늘, 돌툽, 흑요석기 등 석기 3백여 점, 점토제 얼굴상 1점, 그리고 14채의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층위 상태를 보면 현 지표로부터 생토층까지는 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약 4.5미터의 두께로서, 위로부터 6개의 자연 층위가 나타났다. 유적의 극히 일부 지점에서만 나타나는 1층(점토층, 청동기 시대층)을 제외한 2층에서 6층까지는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신석기 시대층이다. 이 중 4층과 6층은 유물 무포함층이므로, 이를 제외한 2층을 신석기 상층, 3층을 신석기 중층, 5층을 신석기 하층으로 부르기로 한다.

하층은 가장 오래된 층인데 여기서 13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직경 6미터 정도의 원형에 가까운 주거지의 바닥면은 약 5센티미터 두께의 점토를 깔 다음 그 위에 불을 놓아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110

센티미터 × 70센티미터 크기의 사각형 노지를 1-2개씩 중앙에 설치하였다.

주거지 바닥면과 그 외곽부 사이에는 고저차가 거의 없는데, 당시의 지반이 고운 모래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주거형태는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보편적인 수혈 주거지와는 달리 고운 모래로 된 지반 위에 넓게 집토를 깔고 그 위에 불을 놓아 단단하게 한 다음 가구를 설치한 일종의 지상 가옥 형태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주거지 외에도 여기서는 모두 4개의 야외 돌구이 적석 시설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것은 사냥한 고기를 구워 먹던 시설물로서, 15-30센티미터 크기의 강자갈을 타원형으로 3-5겹 쌓아 만든 것인데 그 중 큰 것은 직경이 330센티미터에 이르는 것도 있어, 이를 통해 신석기인들의 공동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주거지의 내부 및 그 주변에서는 복원 가능한 토기와 석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토기의 형태는 모두 납작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좁은 저부에 비하여 몸체 부분이 넓은 바리형 토기가 대부분이고 향아리형이나 단지형토기도 있다.

이들 토기의 표면은 마연 조정되어 광택이 나는 특징이 있다. 문양의 시문은 예외없이 구연부에만 국한되어 있다. 시문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되는데 압날문의 경우 점문이나 조문류, 음각문의 경우 종위평행단선문, 압날문과 음각문이 혼합된 경우 이들 두 문양 요소의 결합 형태가 각각 주체를 점하고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덧무늬토기가 반출되었지만 단 2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토기류와 함께 여러 종류의 돌로 만든 생활도구가 출토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결합식 낚시바늘, 사각형 돌칼, 돌화살촉, 타제석부, 돌톱, 흑요석제 인기등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결합식 낚시바늘은 가장 특색있는 어구의 하나로서 낚시 허리 부분과 침의 결합으로 낚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낚시 허리 부분은 길이 10센티미터 정도의 돌로 만든 것으로서 줄을 맬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낚시바늘을 접합하기 위한 부분은 편평하게 갈아 놓았다.

그런데 여기에 접합되는 낚시바늘은 1점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동물뼈를 깎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합식 낚시바늘이 일본에서도 다수 발견된 바 있는데, 오산리와는 달리 낚시 허리 부분은 한결같이 사슴뿔을 갈아서 만든 것이 다르다.

이러한 결합식 낚시 도구의 기원 문제는 오산리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서부터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오산리에서 남부 지방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이러한 돌로 만든 결합식 낚시바늘이 이번에 다수 출토된 것은 동아시아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힘들다.

사각형 돌칼은 그 날 부분이 예리하지가 않아 절단용이라기보다는 물고기의 비늘을 벗겨내기 위한 조리용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돌톱은 비교적 강도가 높은 혈암으로 만든 것으로서 길이 24센티미터, 폭 6센티미터 크기에 23개의 톱니를 가진 대형 톱인데, 이제까지 주로 흑요석으로 만든 10센티미터 내외의 소형 돌톱이 보고된 바는 있지만 이처럼 대형 돌톱이 출토된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그 예가 드물다.

한편 이곳에서 흑요석제 석기가 출토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왜냐하면 흑요석이라고 하는 것은 화산지대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함경도의 명천, 길주, 회령이나

백두산 일대, 남쪽으로는 울산, 장기 부근 등 극히 한정된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을 뿐인데 이곳에서 흑요석이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 교오또 대학의 히가시무라 교수에게 이 흑요석기의 X형광선 분석을 의뢰했다. 이 분석법은 흑요석의 원산지를 추출하는데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서 분석 결과, 이곳 흑요석은 가까운 함경도 명천이나 길주가 아니라 백두산이 원산지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또한 최하층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도토리가 발견되어 8천년전의 식생활을 짐작하게 해주었다. 최하층 주거지 바닥에서 채집한 흙을 미세한 조리를 이용하여 물에 걸러 미세한 자료를 찾아내는 부상 기술을 응용한 결과, 한 줌의 도토리가 검출된 것이다.

이것은 일본 오오사카 시립대 고네가와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Quercus Sp'라는 학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도토리와 함께 말안장 모양의 원시 멧돌이 주거지 바닥에서 발굴되어 도토리를 가루로 만들어 조리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하여간 한국 최고의 신석기 시대의 유적에서 도토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신석기 시대 연구는 어업과 수렵 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신석기인들의 식생활을 동물성 위주로 규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산리 유적에서 도토리와 멧돌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대에 있어서도 식물성이 주식이고 동물성이 부식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의 원시 경제생활에서 분업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어업과 수렵은 남성의 주업이며 도토리와 같은 식물 채집은 여성의 주업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오산리 유적의 신석기 중층은 하층과는 4층의 유물 무포함층을 사이에 두고 그 윗층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도 납작밑 토기류만 출토되었다.

이들 하층 토기와 비교하여 볼 때, 목이 있는 항아리류가 증가하고 몸체에 비하여 저부가 넓어진 안정된 것이 많다. 태토에는 굵은 모래알이 섞인 것이 두드러지게 많으며, 그릇 표면은 마연 조정된 것도 있으나 매우 거친 편이다.

점과 선을 배합하여 상반부에만 국한하여 시문한 문양이 있는 토기류와 함께 문양이 없는 토기류가 출토되었는데 후자가 수적 우위를 차지한다. 토기 바닥에는 활엽수의 엽맥이 선명히 찍혀 있는 것이 많다. 이처럼 토기 바닥면에 엽맥이 찍힌 것은 세계의 신석기 토기 중 시베리아의 연해주 및 아시아 태평양에 먼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출토되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석기로는 하층에서도 출토된 결합식 낚시바늘, 사각형 돌칼 등이 출토되었으며, 연수정제 차례거리 1점이 출토된 것이 이채롭다.

이 층에서도 주거지가 확인되었는데, 하층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즉 약 30센티미터 크기의 하천석을 직경 약 4미터 크기의 원형으로 둘러 놓은 것이다.

한편 포함층내에서 출토된 것은 아니지만 이 중층 토기류와 함께 점토제 얼굴상 1점(길이 4.4센티미터, 폭 4센티미터, 두께 1센티미터)이 채집되었다.

신석기 상층은 유적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표토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후세의 교란이 심한 편이다. 토기는 직립 구연에 뾰족밑이다. 문양은 구연부에 시문된 것이 많은데, 구연부에 평행 밑집 사단

선문, 사적자문, 조대문과 기복부에 어골문을 시문한 것과 구연부 및 기복부에 어골문으로만 시문한 것이 있다.

이 중에는 태도에 석면을 섞은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뽕족밀의 그릇 형태, 시문방법, 문양, 태도에 석면 혼입 등은 서해안 지역의 뽕족밀 빗살무늬토기와 일맥 상통하는 점이 많다.

오산리 B지구에 있어서도 퇴적 양상은 오산리 A지구와 비슷하나 상층에서는 어골문으로 시문된 뽕족밀 토기류와 함께 다수의 돌로 만든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하층에서는 납작밀 토기류와 함께 결합식 낚시바늘이 출토되었다.

이 하층에서는 또한 구연부에만 덧무늬로 장식한 갈색 계통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밖에도 붕괴된 퇴적층에서는 바닥이 좁은 납작밀에 구연부에만 덧무늬로 장식한 토기가 채집되었다. 이는 부산시 동삼동이나 일본 대마도 율고 유적의 토기와 유사점이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이곳에서 채집한 목탄 시료 10개의 연대 측정을 일본 교오도 산업대학에 의뢰, 그 결과를 다시 나이트 보정법으로 보정하여 실연대를 구한 결과, 오산리 신석기 문화는 지금부터 약 8천년전으로 올라가는 가장 이른 신석기 유적임이 판명되었다.

이와 같은 6년간의 발굴 성과는

첫째, 지금까지 거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던 동해안 지역 선사문화의 일면을 파악하게 되었다. 오산리 신석기 하층 문화는 주거 형태에 있어서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보편적인 수혈 주거지와는 달리 지상가옥의 형태이며, 토기도 대동강이나 한강 유역의 뽕족밀 형태와는 구별되는 납작밀이다.

또한 석기면에 있어서도 결합식 어구, 돌톱 등 특색있는 석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태백산맥 이동인 동해안과 서해안 신석기 문화의 비교 연구를 통한 폭넓은 신석기 문화의 연구에 유력한 단서가 제시되었다.

둘째, 선사 문화의 전파, 교역에 관한 중요한 단서가 제시되었다. 이제까지 선사시대의 문화전파나 교역문제는 주로 유물 형태의 유사성이나 제작기술의 유사성여하에 따라 논의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산리 출토 흑요석의 X형광선 분석 결과 흑요석의 원산지가 백두산이라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확실한 과학적 단서 위에서 논하는 진전이 이룩되었다.

셋째, 한국 신석기 문화의 기원 탐구에 유력한 단서가 제공되었다. 오산리 신석기 하층의 C14 연대의 상한선이 약 8천년으로 나와 이제까지 알려진 신석기 유적 중에서 최고의 연대를 보이고 있다.

이 연대는 지금까지 우리 신석기 문화의 기원지로서 생각되어 온 연해주보다 2천년 정도 선행되는 것이다.

이미 그 이전부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반도 동해안 및 중국 동북 지방을 잇는 제 지역에 있어서는 이 납작밀 토기를 사용하는 신석기 문화가 번성하고 있었다.

네째, 신석기 시대의 정신적 측면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었다. 이제까지 신석기 문화 연구의 중심 자료는 토기나 석기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산리 출토 점토제 안면상은 신석기인의 사유 및 종교관 등을 탐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간 서울대 박물관에 의한 6차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14채의 집자리가 확인되었고, 약 3,000점의 중요 유물들이 출토되어서 한민족의 초기 단계를 구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나왔다. 더구나 이

유적을 중심으로 도화리 구석기를 위시하여, 청동기, 원삼국시대의 각 유적, 유물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대 변화에 따른 우리 역사의 변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한국 제일의 관광지로서, 수학 여행지로서 국내외의 관광객들이 강원도 설악산이나 바다를 찾고 있지만, 이토록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사실들을 보여 주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여간 아쉬운 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지방적인 차원에서 역사 현장의 재현 및 역사 학습장으로 조성,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전망은 무척 밝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오산리 신석기 유적에서 노출된 14채의 집자리는 그 원상태가 잘 남아 있기 때문에, 7채 정도는 야외에 원형 그대로 재현, 복원하고, 나머지는 유리로 만든 야외 전시관을 건축하여 그 안에 발굴시 노출된 상태 그대로 재현해 놓으면서, 이 안에서 발견된 유물이나, 사진을 전시하여 놓은 ‘오산리 선사 유적 공원’추진이 요망된다.

이곳 주변에는 도화리 구석기 유적이거나 원삼국 주거지 유적 발굴 자료가 있으므로, 전시관에는 이곳의 자료를 동시에 전시함으로써 역사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영동 지역에 있어서는 이 남대천 일대가 선사 유적지가 가장 밀집된 점을 감안하여 서울의 암사동 선사 유적 공원처럼 ‘오산리 선사 유적 공원’으로 조성하여, 그저 설악산이나 타고, 바다나 보고 가는 단순한 관광 놀이터로서가 아니라 관광과 역사를 함께 하는 코스의 하나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